미선나무 자생지(自生地)
-특산자원(特産資源)으로서의 문화재(文化財)-

文化財委員 李 昌 福

유래(由來) : 미선나무(*Abeliophllum distichum* Na-kai)는 물푸레나무科에 속(屬)하는 낙엽관목(落葉灌木)이며 1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특산속(特産屬)으로서 진천군(鎭川郡)과 괴산군(槐山郡)의 군자산록(君子山麓)에서 자라며 발견경위(發見涇渭)는 대략(大略)다음과 같다.

1917年 日人 식물분류학자(植物分類學者)인 중정 맹지진(中井 猛之進) 정태현 박사(鄭台鉉博士)가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忠北 鎭川郡 草坪面 龍亭里)의 언덕 위에서 자라는 측백나무 자생여부(自生與否)를 조사하다가 처음으로 발견한 희귀종(稀貴種)의 하나이다. 발견 당시에는 지방민(地方民)이 말하는 전설(傳說)에 따라 언덕 위에 정자(亭子)가 있었고 정자 앞에 측백나무가 있었다고 하므로 측백나무와 더불어 중국(中國)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다고 한다. 당시(當時)에는 측백나무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中國)에서 자라는 향선나무(*Fontanesia*)는 키가 크고 곧추서며 꽃잎이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에 전연(全然)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중정(中井)는 1919년 미선나무속(*Abeliophyllum*)이란 새로운 속(屬)을 설치(設置)하고 1종으로 구성된 특산속(特産屬)임을 보고(報告)하였다. 미선나무란 그의 열매가 부채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며 학명(學名)의 아벨리오휠룸이란 속명(屬名)은 그 잎이 댕강나무속(*Abelia*)의 잎(Phyllum)과 비스하다고 보고 붙인 이름이다 중구산 향선나무도 향쥐똥나무란 이름을 사용한 학자가 있으나 그의 열매가 미선나무와 같기 때문에 필자(筆者)가 향쥐똥나무의 향과 미선나무를 붙여서 향선나무라고 정정(訂正)한 이름이다.

1922년 중정(中井)는 미선나무의 꽃중에는 붉은 빛이 도는 것이 피는 것을 복 기본종(基本種)을 *for.albif-lorum* Nakai라고 하였고 꽃봉우리는 자주빛이었다가 피게 되면 붉은 빛이 도는 연한 보라색의 것을 분홍미선나무 *for. lilacinum* Nakai라고 하였다. 그러나 명명규약상(命名規約上) *for. albiflorum*은 *for.distichum*이 된다.

경성(京城) 제일고등보통학교(第一高等普通學校)의 삼위삼(森爲三)는 미선나무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자생지(自生地)의 현황(現況)을 조사하였는데 학술적(學術的)인 보존가치(保存價値)를 인정되어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선나무에 대한 대중적(大衆的)인 관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생각된다. 특산종(特産種)에 대한 희귀성(稀貴性)은 인간(人間)의 호기심(好奇心)을 자극한 나머지 한포기 두포기 캐어가는 사람이 생겼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된 구역(區域)밖에서도 미선나무는 자라고 있었지만 울타리안에서 자라는 것만이 진짜 미선나무라고 착각한 나머지 기념물(記念物)로 지정된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것만이 진짜 미선나무라고 착각한 나머지 기념물(記念物)로 지정된 울타리 안에서 자라던 것은 어느 사이에 차츰 없어지

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미선나무의 자연번식력(自然繁殖力)이 이것을 소유(所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數)를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불행중(不幸中) 다행(多幸)이도 1955年 4月 15日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槐山郡 長延面 松德里) 길가에서 자라던 미선나무가 괴산군 장풍 국민학교 황병옥(槐山郡 長豊 國民學校 黃炳玉)교사에게 발견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대학교(大學校) 사범대학(師範大學)교수 최기철 박사(崔基哲 博士)는 정태현 박사(鄭台鉉 博士)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한 結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제58호로 지정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鎭川郡 草坪面 龍亭里)에서만 자라는 줄 알았던 미선나무가 세상(世上)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자 무지(無知)의 소치(所致)로서 진천에서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할 무렵 괴산군(槐山郡)에서의 발견은 식물학계(植物學界)에 있어서 놀랄만한 사실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귀중한 사실(事實)이 한 국민학교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생물교육(生物敎育)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치 깊어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反對)로 새로운 것에 대한 대상적(大象的)인 막연(漠然)한 호기심(好奇心)은 또다시 송덕리(松德里)의 미선나무를 채취하기 시작하여 진천군(鎭川郡)에 있어서와 같은 결과(結果)를 만들고져 하고 있었다.

달이 가고 해가 짐에 따라 생활(生活)에 여유가 생기게 되자 관상수(觀賞樹)에 대한 호기심(好奇心)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관상수는 봄을 따라 산지(山地)에서 자라는 많은 수종(樹種)이 변(變)을 당하였는데 그중에 희양목이 들어있다. 괴산군내(槐山郡內)의 산지(山地)에는 희양목이 자라고 있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 이른 봄철에 희양목의 경제적 가치(經濟的價値)를 아는 장사치들은 골동품을 뒤지는 호리꾼처럼 산림법(山林法) 구멍을 뚫고 이 골짝 저 골짝을 샅샅이 뒤지면서 희양목을 모조리 캐어갔다고 한다. 희양목이 자라던 바로 옆에서 자라는 미선나무의 아름다운 꽃이 한창 필무렵이었으므로 미선나무가 있는 곳이 차츰 알려지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칠성면의 율지리(七星面의 栗池里)와 장연면 추점리(長延面 楸店里)의 것은 이미 지정된 곳보다 더욱 많은 개체(個體)가 자라고 있었다. 물론(勿論) 이러한 사실은 1961년 정태현(鄭台鉉), 이우철(李愚喆) 양씨(兩氏)에 의하여 이미 보고(報告)된 것이다.

1969년 충북도(忠北道)의 요청(要請)에 따라 필자(筆者)가 현지(現地)를 답사(踏査)한 결과(結果), 율지리(栗池里)와 추점리자생지(楸店里自生地)는 보존가치(保存價値)가 인정되어 새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하게 되었으나 진천군(鎭川郡)의 것은 살아남은 미선나무가 없었으므로 이를 해제(解除)하였다.

이상(以上)과 같은 경로를 따라 현재(現在)에는 다음의 3개소가 미선나무의 자생지(自生地)로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되어 있다.

제 58호 괴산(槐山)의 미선나무 자생지(自生地)(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忠北 槐山郡 長延面 松德里)58번지)

제 98호 괴산 추점리(槐山 楸店里)의 미선나무 자생지(自生地)(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忠北 槐山郡 長延面 楸店里)

제 99호 괴산 율지리(槐山 栗池里)의 미선나무 자생지(自生地)(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山12(忠北 槐山郡 七星面 栗池里)

환경식생(環境植生)의 특색(特色)으로 본 입지조건(立地條件)

미선나무가 자라는 곳은 노출(露出)된 전석지(轉石地)이므로 건조(乾燥)에 강(强)한 종류라고 판단하기 쉬우나 근처에서 자라는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음습지식물(陰濕地植物)과 건생식물(乾生植物)이 같이 자라고 있어 흥미(興味)로운 현상(現狀)을 나타내고 있으며 석회암지대(石灰巖地帶)에서 잘 자라는 회양목, 또 그리 흔하지 않은 백선등이 있다.

건생식물(乾生植物) : 매화 말발도리, 산조팝, 더위지기, 좀깻잎나무.

설컹에서 자라는 종류 : 개암나무, 산초나무, 갈매나무, 두릅나무, 고광나무, 붉나무 , 생강나무

음지식물(陰地植物) : 박쥐단풍, 개맥문동.

습지(濕地)를 좋아하는 식물 : 속새, 나도국수나무.

산록 경사지(山麓 傾斜地)에서 자라는 종류 : 국수나무, 찔레.

덩굴식물 : 댕댕이 덩굴, 담쟁이 덩굴, 사위질빵, 멍석딸기, 환삼덩굴

미선나무는 바위틈에서 자라고 있으므로 그의 뿌리는 바위 밑에서 비교적 수분(水分)이 많은 곳에 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암면(岩面)의 반사열(反射熱)로서 온도(溫度)가 높아지고 주위가 건조하기 때문에 증발열(蒸發熱)이 많을 것이므로 더욱 더 많은 수분(水分)이 소요(所要)되리라고 믿는다. 따라서 미선나무가 충분(充分)한 생장(生長)을 하고 있는 곳은 이러한 조건(條件)을 충족(充足)시킬수 있는 입지적조건(立志的條件)이 구비(具備)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습지식물(濕地植物)이 자랄수 있다고 생각된다. 건생식물(乾生植物), 설컹에서 자라는 종류나 덩굴성 식물은 이차적(二次的)인 침입종(侵入種)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只今)까지 발견된 장소는 산록 경사지(山麓傾斜地)인 점으로 보아 습기(濕氣)가 많음과 동시(同時)에 배수(排水)가 좋으며 부식질이 풍부한 곳이 이의 생육(生育)에 적합(適合)한 곳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단풍박쥐나무와 같이 숲속에서 자라는 종류가 있는 것은 바로 미선나무가 자라는 윗쪽에는 활엽수(濶葉樹)의 숲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금(只今)은 없어졌다고도 생각이 된다. 따라서 미선나무의 자생지(自生地)를 보전(保全)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환경적요인(環境的要因)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의 요건(要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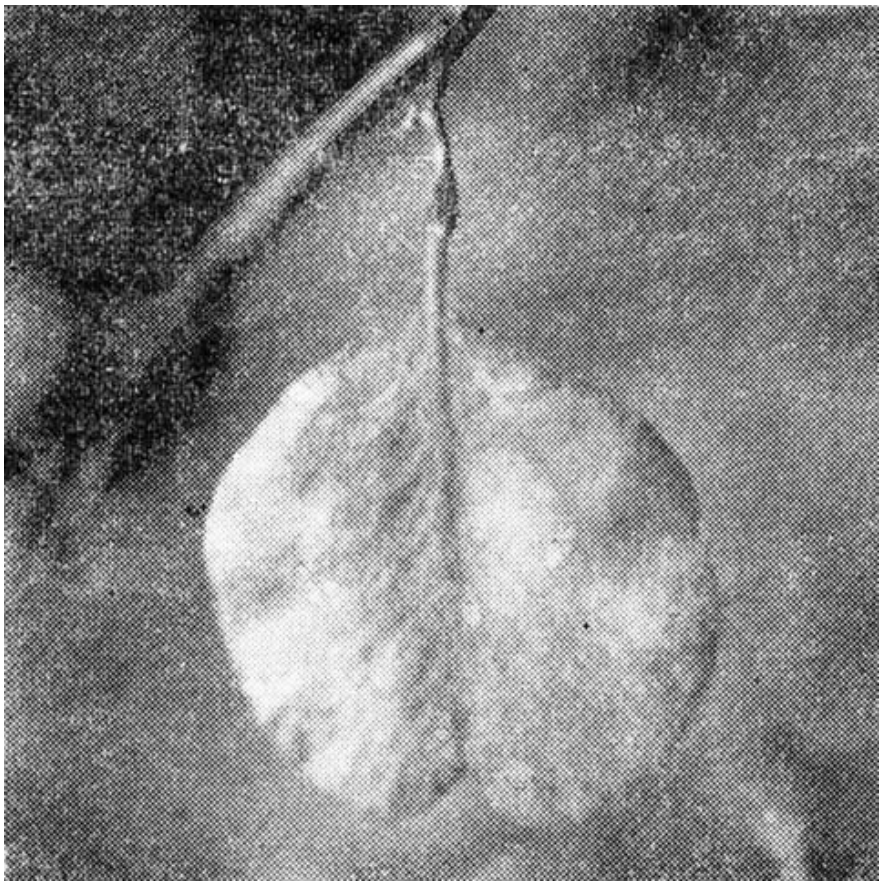
송덕리 자생지(松德里 自生地)는 전석지(轉石地) 주위의 임상(林相)이 파괴되어 소나무의 치수(稚樹)와 잡관목(雜灌木)이 자라고 추점리(楸店里) 자생지(自生地)는 환경청소(環境淸掃)에 지나친 신경(神經)을 쏟은 나머지 자생지(自生地) 주위의 임목(林木)을 깨끗이 벌채(伐採)하였다.

이것은 미선나무 자체(自體)만을 생각하고 자생지(自生地)라는 관념(觀念)이 전연(全然) 없었던 처사(處事)이므로 앞으로 주의하여야겠다.

율지리 자생지(栗池里 自生地)는 비교적 넓은 범위(範圍)에 걸쳐 미선나무가 자라고 있었으나 거의 없어지고 계곡(溪谷) 숲속에 8주(柱)가 남아있고 산등을 넘어서 1주(柱)가 남아있다. 울타리도 표석(標石)도 없다. 물론(勿論) 지정당시(指定當時)의 장소(場所)에서는 약간 떨어진 곳이다. 숲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개화결실상태(開花結實狀態)가 불량(不良)하다.

아마도 숲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현재(現在)까지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이 만일(萬一) 인위적(人爲的)인 소치(所致)가 아니라면 생태면(生態面)에 있어서 앞으로 좋은 연구자료(硏究資料)의 하나가 될 것이다.

1. 미선나무의 수형(樹形)



2. 미선나무의 열매

미선나무의 형태학적 특징(特徵)

높이 1m 내외(內外)로 자라는 낙엽관목(落葉灌木)이며 밑에서부터 가지가 갈라진다. 1년생경(年生莖)은 홍갈색(紅褐色) 또는 갈색(褐色)이며 곧추 자라다가 윗부분에서 옆으로 휘어진다. 2년생경(年生莖)부터는 굵은 가지의 발달에 비하여 줄기의 직경생장(直徑生長)이 지지(遲遲)하므로 상부(上部)의 중량(重量)을 지탱할 수 없어 옆으로 길게 처지면서 지면(地面)에 닿은 상단부(上端部)에서는 뿌리가 내린다. 수피(樹皮)는 흑갈색(黑褐色)에서 회색(灰色)으로 변하며 표피(表皮)는 불규칙하게 세로 갈라진다. 수(髓)는 평판상(平板狀)이며 서로 밀접하게 겹쳐지고 백색(白色)이다. 1년지(年枝)는 1년생(年生) 줄기의 빛깔과 비슷하며 네모지고 잎은 대생(對生)하지만 이열(二列)로 배열(配列)한다, 탁엽(托葉)은 없다. 엽병(葉柄)은 녹색(綠色)이며 길이 2～5mm로서 털이 없고 좌우(左右) 가장자리는 날개처럼 얇으며 중앙부(中央部)는 홈이 파졌다. 엽신(葉身)은 녹색(綠色)이며 길이 2～5mm로서 털이 없고 좌우(左右) 가장자리는 날개처럼 얇으며 중앙부(中央部)는 홈이 파졌다. 엽신(葉身)은 난형장난형(卵形長卵形) 또는 타원형(楕圓形)이며 길이 8～52mm, 나비 5～30mm로서 표면(表面)은 담녹색(淡綠色)에서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담녹색(淡綠色)이며 양면(兩面)에 잔털이 산생(散生)한다. 밑부분은 둥글거나 절저(截底)로서 엽병(葉柄)으로 갑자기 뾰족하여지고 엽선(獵船)은 뾰족하다.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처음에는 녹모(綠毛)가 있다가 없어진다. 주맥(主脈)과 측맥(側脈)은 표면(表面)에서 파졌고 털이 없으나 뒷면에서는 도두라짐과 동시(同時)에 잔털이 있다. 화서(花序)는 가지 끝에 나출(裸出)하여 월동(越冬)한다. 총상화서(總狀花序)는 잎이 피기 전 3～4月에 가지끝에서 자라고 길이 4～10cm이며 소화경(小花梗)은 길이 5mm정도이다. 포(苞)는 작은 인편상(鱗片狀)이며 대생(對生)하고 끝이 뾰족하다. 소포(小包)는 꽃마다 2개씩이며 포(苞)와 비슷하다. 꽃은 길이 1cm 내외이다. 꽃받침은 종상(鍾狀)이며 길이 3～3.5mm로서 끝까지 남는다. 꽃받침통은 다소(多少) 네모진다. 열편(裂片)은 4개이며 도난형(倒卵形)이거나 둥글고 길이 1.5～2m로서 복와상(覆瓦狀)으로 포개지며 2개는 대생(對生)하고 안쪽에 위치한 2개는 보다 작다. 화관은 길이 꽃받침의 2～3배이고 백색(白色)으로서 윗부분이 4개로 갈라진다. 통부는 길이 6mm내외이고 열편(裂片)은 처음 족회상(族回狀)으로 포개진다. 수술은 2개이며 화관(花冠)의 밑부분에 붙었으며 열편(裂片)과 호생(互生)한다. 수술대는 극히 짧고 수술은 통부보다 다소 길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꽃밥은 황색(黃色)이며 난형(卵形)이고 밖으로 향하며 약격(葯隔)은 끝이 뾰족하게 돌출(突出)한다. 암술대는 짧고 암술머리는 요두상(凹頭狀)으로 2개로 갈라진다. 과수(果穗)는 길이 4～25mm이며 축(軸)이 네모지고 소과경(小果梗)은 길이 2～4mm이다. 시과(翅果)는 원반상(原盤狀)이며 길이 18～28mm, 나비 18～27mm로서 끝이 다소 파지고 2실(室)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넓은 날개처럼 된다. 종자(種子)는 각 실(室)에 1개씩 들었다. 반타원형(半楕圓形)으로서 흑갈색(黑褐色)으로 성숙(成熟)하기 위에서 밑으로 달리고 겉에 유두상(乳頭狀) 낮은 돌기(突起)가 있다. 배유(胚乳)가 있으며 종피(種皮)는 얇으나 딱딱하다. 종자는 길이 10～12mm, 나비 4mm, 두께 1～1.5mm 정도이다. 자엽(子葉)은 타원형이며 견평(肩平)하고 희며 유근(幼根)은 위로 향한다. 기본종(基本種)은 꽃색이 희고 붉은 빛이 도는 연한 보라색 꽃이 피는 것을 분홍미선나무 *for. lilacina* Nakai라고 한다.

자생지보호(自生地保護) 에 대한 문제점(問題點)과 대책(對策)

1. 자생지(自生地)

지도상(地圖上)에 표시한 흑점(黑點)은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指定)된 곳이고 X표는 과거 자라던 곳이지만 현재(現在)는 없어진 곳이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된 것은 철조망(鐵條網)을 설치하여 자유(自由)로 출입(出入)할 수 없도록 제한(制限)하여 왔으나 현재(現在) 살아있는 것은 모두 10주(柱) 내외(內外)씩이다.

주민(住民)들이 전(傳)하는 바에 의하면 본지역(本地域)에서 굴취(堀取)한 미선나무는 일부(一部) 원주지방(原州地方)으로 나가고 일부(一部)는 타지방(他地方) 관상수업자(觀賞樹業者)에게 팔리고 괴산군내묘포자(槐山郡內苗圃者) 두 사람이 각 만주내외(萬柱內外) 씩을 기르고 있으며 산에서 캐어오는 것을 사서 모았다고 한다.

이상(以上)의 사실(事實)은 미선나무가 한 지역(地域)에서만 자라는 특산수종(特産樹種)이라는 점과 관상수(觀賞樹)의 경제적가치(經濟的價値)가 높아짐에 따라 관상적 소질(觀賞的素質)이 보인데서 나타난 현상(現狀)이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問題點)이 있다.

ㄱ. 향토자원(鄕土資源)의 애호(愛護)보다도 개인(個人)의 영리문제(營利問題)가 크게 작용(作用)하였다.

ㄴ.특산자원(特産資源)이나 환경미화자원(環境美化資源)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어진다.

ㄷ. 항구적(恒久的)인 대책(對策)보다도 순간적(瞬間的)인 이윤문제(利潤問題)에 치중(置中)되었다.

ㄹ. 현금(現今) 성행(盛行)되고 있는 관상수 유통과정(觀賞樹 流通過程)에는 재배영리과정(栽培營理 過程)이 생략(省略)된 경우가 들어있어 향토(鄕土)의 유산(遺産)을 고갈(枯渴)시키고 있다.

ㅁ. 산림법(山林法)에서는 용재자원(用材資源)에만 치중(置中)한 나머지 미선나무같은 관목(灌木)이나 특용자원(特用資源)의 초목류등(草木類等)은 입산금지라는 간판만이 지키고 있어 자원(資源)의 고갈(枯渴)을 촉진(促進)시키고 있다.

대책(對策)에 대한 의견(意見)

미선나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미선나무의 자연번식력(自然繁殖力)을 초과함으로써 미선나무가 자생지(自生地)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의 증식(增殖), 복구(復舊) 및 계몽등(啓蒙等)을 통하여 이 자랑스런 특산자원(特産資源)의 자생지(自生地)를 보전(保全)할 수 있다.

1.증식(增殖)

미선나무는 증식(增殖)시키기 쉬운 종류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의 수요자(需要者)가 많을 때에는 자생지(自生地)에서 직접(直接) 캐어내는 방법(方法)을 지양(止揚)하고 다음과 같은 인공적(人工的)인 증식방법(增殖方法)을 통하여 얼마든지 증식(增殖)시킬수 있으므로 그 방법(方法)을 간단하게 설명(說明)하고져 한다.

분주(分株) : 비배관리(肥培管理)를 적당히 하면 밑에서 맹아(萌芽)가 나올 뿐 아니라 지면(地面)에 닿은 가지에서도 뿌리가 내림으로 이것을 갈라서 심는다. 그러나 조속(早速)한 시일내(時日內)에 대량증식(大量增殖)은 어렵다.

삽목(揷木) : 충실(充實)한 가지를 길이 15～20cm정도로 잘라서 조춘(早春)과 만하(晩夏)에 실시(實施)하지만 조춘(早春)의 것이 보다 쉽다. 당년(當年)에는 잔뿌리가 내리고 순이5～10cm정도로 자람으로 다시 1년간 키워서 내어야 한다. 짧은 기간내(期間內)에 대량생산(大量生産)이 가능(可能)한 방법중(方法中)의 하나이다.

종자(種子) : 발아생리(發芽生理)에 관한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싹이 난 당년에 10cm정도로 자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며 결실량(結實量)도 비교적 풍부하다. 발아생리(發芽生理)의 규명과 더불어 종자(種子)로서 번식시키면 대량생산(大量生産)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며 나무를 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2. 복구작업(復舊作業)

자생지(自生地)로 지정한 곳에 각 100주(柱) 정도만 보식(補植)을 한다면 충분(充分)하리라고 믿는다. 단 3개소에 심을 300주(柱)의 묘목(苗木)을 얻기는 어렵지 않으나 이것을 제자리에 심는 노력(勞力)이 상당히 요구(要求)되리라고 믿는다. 겹겹으로 싸인 돌과 바위 밑에 약간의 흙이 있으므로 이것을 심을 때는 각별(恪別)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을 캐어낼때는 뿌리를 이리 저리 끊으면서 캘 수 있었으나 심을 때에는 그처럼 쉽게는 되지 않는다. 특(特)히 송덕리(松德里)와 율지리(栗池里)가 그렇다. 추점리 자생지(楸店里 自生地)는 비교적 잔돌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하여 작업(作業)을 하기 쉬울 것이다.

종류(種類)는 다르지만 제주도 토끼섬의 문주란 자생지(自生地)도 미선나무와 같은 위기(危機)를 당하였으나 인제는 완전(完全)히 회복(回復)되었을 뿐 아니라 증식방법(增殖方法)이 알려지자 시장가격(市場價格)의 하락(下落)을 초래(招來)하여 이를 훔쳐가는 사람도 없어졌다.

3. 계몽(啓蒙)

철조망(鐵條網)을 하고 파수꾼이 지키고 있다 하드라도 훔치고져 하는 사람을 완전히 막을수는 없을 것이다. 요(要)는 주민(住民)의 협조(協助),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더불어 문화재(文化財)의 중요성(重要性)에 대한 계몽(啓蒙)이 뒤따라야 한다. 진천군 초평면(鎭川郡草坪面)의 것은 해제(解除)가 되었으나 그후의 소식이 궁금하여 들려 보았다.

과거 지정되었던 자리를 찾노라고 이리 저리 살피고 있을 때 한 어린이가 미선나무를 캐어들고 분주하게 집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 어린이와 같이 제 자리를 찾았더니 캐어낸 나무가 유일(唯一)하게 남아있던 최후(最後)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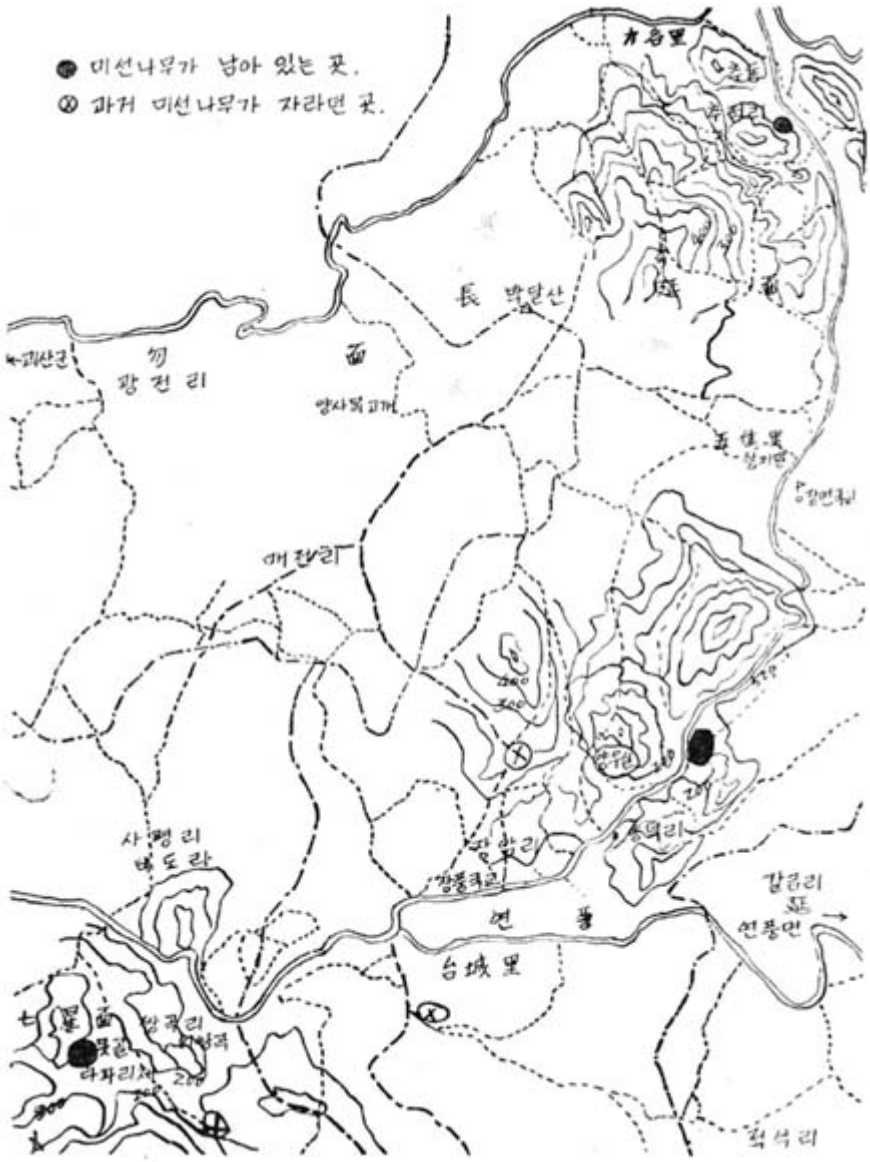
이 국민학교 어린이만을 탓할 수는 없다. 이 근처에서 자라던 수(數)많은 미선나무를 어른들이 캐어가는 것을 보고 자란 어린이의 행동(行動)이었기 때문이다.

引用文獻

1. 中井猛之進 : Genus Novum *Oleacearum* in Corea Media Inventum, 植物學雜誌 33,153～154(1919): *Abeliophyllum distichum foralbiflorum et for. lilacinum* Nakai, 植物學雜誌 36, (1922)

2. 鄭台鉉 : 미선나무에 대하여, 생물학회보 vol.1, No. 1, 71～75(1956)

3. 鄭台鉉, 李愚喆 : 忠北植物 調査硏究, 成均館大學敎 論文集 6輯 238～241, 254 (1961)



● 미선나무가 남아 있는 곳
⊗ 과거 미선나무가 자라던 곳

- 끝 -